

2008. 7. 17 (木)

第176回 束草市議會 臨時會
市 政 質 問 書

1. 교도소 유치에 대하여
(김병욱 의원)

束 草 市 議 會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병 옥	서 명	
제 목	교도소 유치에 대하여	담당실과	시 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영랑동장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속초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영랑동 교도소 유치계획에 대하여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랑동 교도소 유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관광도시로서 속초의 미래 비전을 확고히 하고 일련의 부당성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협소한 속초시의 4만평이나 되는 토지를 인구유입효과와 지역 경제 창출은 물론, 지역내 농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지역경제 발전 논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효율적인 토지공간 이용과 도시균형발전에 큰 장애가 될 교도소 유치만이 지역경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서글픔을 안고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사회단체협의회가 교도소 유치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교도소 유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교도소 건립에 긍정적인 찬성 위주의 토론자를 구성하여 주민과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얼마전 모 방송국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설명과 동의없이 속초시가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 척산온천 관광지개발사업 등 일방적인 사업결정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지방행정의 신뢰성 저하와 참된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인가 하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향후에 속초하면 관광휴양도시 이미지가 아닌 속초교도소로 각인되는 것은 아닌지, 10년후, 50년후, 100년후 우리 속초의 경제중심은 과연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교도소 유치만이 속초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대안인지 거듭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교도소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21세기의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인 관광은 외화획득, 고용창출, 투자촉진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초석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의 기반이 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속초시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향후 개발 가능한 권역별 면적과 장·단기적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도소 유치와 관련하여 교도소 예정지역은 주민의견과 객관적인 합리성, 타당성, 미래지향성을 갖춘 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랑동에 일방적인 유치계획은 시(市)와 주민들과의 불협화음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교도소 유치과정과 전반적인(주민의견, 합리성,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시정소식지에는 교도소 유치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이루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감사합니다.